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의 응용 사례

Case Studies Applying Tea-Culture Therapy to Stress Reduction Program for the Sex Offenders Monitored by GPS System

김 인 숙¹⁾ 부산여자대학교 사회복지재활과

In-Sook K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Rehabilitation, Busan Women's College

초록: 성범죄로 인하여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긍심이나 자신감 저하, 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들이 비행이나 재범에 연루되지 않으면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자긍심이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심리적 안녕감을 가져다주는 차문화치료(tea culture therapy)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그들의 스트레스 경감 등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었다. 소수의 연구대상자($n=7$)를 토대로 10회기의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 실시 전에 비하여 스트레스 수준이 상당히 저하되었으며, 또한 자긍심 상승 및 인간관계에서의 자신감 회복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주요어: 성범죄, 성폭력, 전자발찌, 스트레스, 차문화치료

Abstract: The anklet-wearing sex offenders who are monitored by the GPS system have had difficulties in creating health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ue to lack of self-respect or self-confidence as well as stressful conditions. They should be supported to adapt to their current life situation well in order not to be involved in recidivism. Thu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ir ability to restore their self-respect or self-confidence and reduce stress. In this study, ten sessions of tea-culture therapy program was applied to them in order to examine if there was any stress reduction effect. The major findings showed that their perceived levels of stress were reduced and their self-respect and self-confidence were also restored.

Key words: GPS Monitoring of Offenders, Sex Crime, Sex Offenders, Stress, Tea-Culture Therapy

1) 교신: (우) 614-73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 506 부산여자대학교 사회복지재활과 김인숙 (ts3260@hanmail.net)

서론

최근 우리 문화권에서는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2008년도부터는 일부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출소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실 성폭력범에 대한 전자발찌제도는 2006년 2월에 발생한 '용산 초등학교 성폭행 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2007년 4월 제정된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경과규정에 따라 2008년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 후 그 법률의 명칭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그 적용대상이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살인범 및 강도사범으로 확대되었으며,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되면서 법률의 명칭이 다시 '특정 범죄자의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김정환, 2013).

전자발찌는 모든 성폭력범에게 부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한 범죄 또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만 법원의 선고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시행 첫해에는 부착자가 188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347명으로 늘어났고, 2014년 4월 말 현재 1,800여 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며, 또 교도소 출소와 함께 전자발찌를 부착하기로 예정된 대상자가 2,100여명 정도에 해당된다(법무부 보호관찰과 자료제공).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재범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의 재범비율은 착용하지 않은 대상자의 8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혹자는 제도의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강호성,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 등 성폭력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2013)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3년에 연간 10,365건 발생했던 성폭력범죄는 2012년도에는 21,346건으로 10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하였다. 즉 전자발찌의 부착은 그 부착

자들에게 재범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 효과가 기대만큼 잘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미국 법무성의 연구보고서에서도 전자발찌가 부착자의 배우자나 자녀, 친구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부착자의 약 43%는 전자발찌가 불편함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의 파트너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터뷰에 응한 보호관찰관의 89%가 전자발찌 때문에 부착자가 그들에게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했음을 느꼈다고 보고한다(NIJ, 2011).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착장치 등은 선진국들의 것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소형이기는 하지만, 부착자들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더 큰 편이다. 전자발찌 부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들의 83%가 전자발찌를 부착한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지만, 역시 64% 정도는 전자발찌 부착을 매우 고통스러운 처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외출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인 불안감과 수치심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운오, 2009). 박선영 등(2010)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들과의 면접조사를 토대로 그들이 항상 긴바지를 입고 다니고 목욕탕에도 가지 않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전자발찌 부착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등 숨기고 싶은 욕구가 강함을 보고했다. 역시 부착자들은 전자발찌가 외부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대인관계나 구직활동에서 위축되고 자괴감이 저하된 상태, 즉 스트레스가 매우 심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음도 보고하였다.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스트레스를 다른 집단과 비교한 바에 의하면, 일반인들의 경우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여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비율이 15% 정도 그리고 일반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19% 정도이었던 반면, 성범죄로 인하여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들의 경우 그 비율이 6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성철, 김충섭, 2013). 또 전

자발찌 부착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장기간 전자발찌의 부착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자살의 충동이나 우울 증상 증가, 사회부적응 등의 문제를 호소하는 부착자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사항 위반이나 재범의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성철, 김충섭, 2013; 이형섭, 2013). 그 극단적인 예의 하나가 바로 2012년에 발생한 소위 ‘서진환 사건’인데, 이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 전과자가 가정주부에게 성폭력을 시도하다가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간 대표적인 성폭력범죄였다. 가해자는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거부감 및 스트레스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중요한 동기였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스트레스를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경우 커다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는 엄청난 범죄로 비화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결국 부착자들이 재범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려면 전자발찌를 외부에서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소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도 타인들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도움도 필요하다. 전자발찌 부착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거나 스스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치료프로그램의 응용은 그들의 정신건강의 유지나 재범방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자발찌 부착자를 대상으로 인지정서행동의 변화로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는 차문화치료 프로그램(김인숙, 2004, 2007, 2011; 김인숙, 조성민, 2013)을 응용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부착자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지각하도록 하는 것과 타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신뢰와 관심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대상자가 전자발찌 부착자이기 때문에 참여자를 소수로 제한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스트레스 변화를 질적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들은 성범죄로 인한 수감생활 종료 후 전자발찌 부착 신고를 받은 자로 출소 후 A광역시에 거주하면서 A광역시 소재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7명의 남성이었다. 그들은 보호관찰소의 소개 및 안내에 의해 자발적으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프로그램은 매주 1회 2시간씩 10주 동안 실시되었다. 프로그램 참여할 당시의 연령은 각각 29세, 35세, 41세, 50세, 50세, 52세, 및 58세이었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효과를 질적으로 변화된 내용의 분석에 의존했지만, 연구대상자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양적으로 살펴보기도 하였다. 즉 효과의 분석은 스트레스 징후 척도로 살펴봄과 동시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관찰기록과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기술한 소감문 내용을 정리한 것을 활용하였다. 스트레스 징후 척도 및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징후 척도.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장세진 등(2005)이 번안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했는데, 이는 Beehr과 Newman(1978)의 도구를 근거로 표준화시킨 것이었다. 여기에는 생리적 및 심리적 스트레스증상인 내면적 징후들(internal symptoms)을 측정하는 8개의 문항들과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표면적 징후들(external symptoms)을 측정하는 4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형태는 Likert식 5점 척도(1-5)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더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면적 증후 및 표면적 징후의 총점이 아니라 1문항의 평균점수를 토대로 분석했다.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전자발찌 부착자의 스트

레스 감소를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은 매주 1회, 1회당 2시간씩, 10회기에 걸쳐서 진행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김인숙, 2011; 김인숙, 조성민, 2013; 정영호, 이경남, 김인숙, 2011). 프로그램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참여자들을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시켜 타인과의 관계를 더 원만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차를 우려내는 과정이나 대접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관계를 갖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고, 또 차를 마시는 동안 내면 속의 자신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스트레스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10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에서 첫회기는 프로그램의 진행이나 내용에 관한 간단한 소개 및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소개 위주로 진행되었지만, 2회기부터는 명상의 시간을 가진 준비단계, 지난 “일주일의 지낸 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인간관계에서의 대화요령을 습득하는 진행단계, 그리고 평가 및 정리단계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 및 각 회기의 목표 등은 다음과 같았다.

1회기 (프로그램의 소개):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방문 목적, 차문화 프로그램의 효과, 앞으로의 일정 등을 소개했다. 그 후 곧바로 차를 마시면서 참여자들이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좀 더 원만하게 할 수 있고, 서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에게 좀 더 자유스럽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별칭을 토대로 자신을 서로에게 소개하도록 했다. 또 2회기부터 모임에서도 자신이 만든 별칭을 사용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다.

2회기 (차문화와 나의 만남): 차를 마시면서 차의 색이나 향, 맛을 통하여 마음의 색을 알아보도록 했다. 또 찻잔이 지니고 있는 따스한 기운과 본성을 느끼면서 자신의 본성과 독창성을 증가시키도록 했다.

3회기 (차나무 이해와 인생목표 세우기): 차나무의 성분과 효능을 배우고, 자신의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성분을 찾아보게 했으며, 또 이를 자신의 현재 상황에 연결시켜 긍정적 자아를 위한 목표를 기술하도록 했다.

4회기 (차 예절): 차와 관련된 예절 등을 배우면서 바른 자세를 몸에 익히고, 또 이를 토대로 인성을 갖추고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5회기 (차 도구 알기 및 빈칫상요법): 차 도구의 이름과 쓰임새를 배우고, 직접 도구를 만져보면서 색과 촉감 등을 얻으며 기억력과 손의 인지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빈칫상요법²⁾을 실시하면서 분노표출을 통해 자신에게 자유로워지도록 했다. 즉 표출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내면의 문제들을 드러내면서 자신에게 자유로워지도록 했다.

6회기 (차 우리기 및, 긍정적 감정 채우기): 차를 우리는 과정을 통하여 겸손이나 봉사, 예절 등을 배우고, 신체 조절 능력 및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바른 자세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좋았던 추억을 회상시켜 의식 속에 긍정적 감정을 채워지게 했다.

7회기 (사건 이후의 부정적 감정 다루기):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개요를 얘기하면서 그 사건과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놓도록 했으며, 그 후 어떠한 느낌을 얻게 되는지를 알아차리게 했다.

8회기 (피해자의 고통 인식과 차 우려내서 대접하기): 피해자가 경험할 수 있었던 고통 등을 인식시키면서 피해자를 새롭게 이해하도록 했다. 차를 가상적인 피해자에게 대접해보는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형성을 위한 봉사나 배려 정신을 함양하고,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했다.

9회기 (스트레스 대처 방식 파악하기 및 다례 시연): 스트레스를 지각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는지를 파악한 후 앞으로는 보다 더 건설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다례 시연도 이루어졌다.

10회기 (차부적³⁾ 만들기, 감사의 절하기, 및 편지 쓰기): 자신의 장점 및 함께 참여한 타인의 장점을 써보도록 했으며, 또 프로그램에 관련되었던 모든 사람들(다른 연구대상자, 보호관찰소 직원, 가족)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큰절을 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도록 했다.

연구절차

- 2) 빈칫상요법이란 차문화치료과정의 일부로 빈칫상 앞에 앉아서 상대방에게 차를 우려내어 대접도 하고, 대화도 하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치료의 효과를 얻는 것임.
- 3) 차부적이란 타인이 묘사한 자신의 강점들이 적힌 내용들과 차에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이 들어있는 종이를 코팅처리를 한 것임. 이를 부적처럼 간직하고 다닐 때 자신의 강점을 자주 상기시켜주면서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효과를 지닐 수 있음.

프로그램 진행자(필자)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A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을 포함한 진행요원 5명을 상대로 프로그램 진행 관련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내용은 주로 차문화 관련 지식의 습득 및 프로그램 진행 시 주의사항 등이었다. 프로그램이 10회기 진행되는 동안 마지막 두 회기에는 보호관찰소 소장도 프로그램 진행요원으로 합류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는 A보호관찰소의 프로그램실로 안정된 분위기가 조성된 방이었다. 방바닥에는 의자 대신에 방석을 깔고 바닥에 앉을 수 있는 배치된 상태였으며, 프로그램 실시는 평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였다. 또 프로그램의 효과를 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전자발찌 부착자 7명에게 첫 회기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10회기가 종료된 후에 스트레스징후 척도에 응답하도록 했다.

프로그램 대상자가 방에 도착하는 대로 출석부에 출석표시와 함께 도착시간을 기록하도록 했으며, 자신의 깔고 앉을 방식을 두 손으로 들고 가서 진행자를 중심으로 반원형 형태가 되도록 자리를 정하여 앉은 다음 다른 참여자들이 모두 도착하여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모든 참석자가 자리를 정돈하고 앉으면 죽비(竹篋)를 쳐서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명상을 하고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이 시작됨을 알려주었다.

매회기 프로그램은 도입, 전개, 및 정리의 순서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었다. 도입 단계는 준비단계로 전술한 바처럼 명상을 실시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명상 시 간혹 음악을 동반한 명상이 이루어지거나 아무런 음악 없이 조용한 가운데 명상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명상이 끝나고 나면 손을 꼬지락거리는 동작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몸을 깨우는 활동을 하여 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단계에서 “일주일을 지낸 나의 이야기” 시간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참여자들이 경험했던 사회생활,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을 모두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다. 대화를 하는 시간에 앞서 몸을 움직이는 차 체조를 실시했는데, 이는

차 씨앗이 발아하여 성장하는 모습을 천천히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하는 순서는 주로 진행자가 앉은자리에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거나 때로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순서를 정하기도 했다. 이 시간에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 시간을 통해서 참여자들의 생각이나 느낌,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 가정생활 등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매회기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시간이 진행되었다.

평가단계에서는 매 회기 프로그램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점, 자신이 느꼈던 감정, 생각, 의견 등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역시 “자신 안아주기” 시간을 가졌는데, “(자신의 별칭을 부르면서)○○야! 오늘도 수고했다. 프로그램에 잘 참여했지? 열심히 해서 고마워, 사랑해!” 등의 말을 자신에게 해주면서 두 팔로 자신을 안아주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단계에서는 보호관찰관에게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석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헤어짐의 인사를 하고 귀가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질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진행요원들은 연구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 과정을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즉 프로그램 전 과정에서 진행자와 참여자간의 대화내용, 참여자들의 신체적인 특징이나 몸짓 등 변화과정을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프로그램 대상자들은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느낀 점이나 변화된 점을 소감문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소감문에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 자신이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등의 기술 내용이 포함되었다.

결과 및 논의

성범죄를 비롯한 사회적 일탈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성장과정에서 성 학대나 다른 폭력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와 같은 이유로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

했으며, 이로 인하여 타인과의 관계형성도 원만하지 못하는 등 대인관계를 정상적으로 발달시키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성범죄자들은 반사회적 성향이나 자기도취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편이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매우 낮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숨기고자 하는 경향도 강한 편이다. 특히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의 능력도 현저히 낮은 편이며, 자존감도 낮은 편이다. 성범죄자들은 이러한 낮은 자존감이나 충동적인 성격, 분노나 적개심, 또는 공감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공격적인 성행동에 몰입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나 힘을 나타내려하고 성범죄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잊고자 한다(Belknap & Holsinger, 2006; Driemeyer 등, 2013; Giotakos, Vaidaki, Markianos, & Christodoulou, 2003; Hall & Hall, 2007).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를 비롯한 주요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수감생활이 끝난 후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시키는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이후 성범죄로 인하여 전자발찌를 부착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의하면, 부착자는 착용에 따른 불편함, 전자발찌 노출에 대한 두려움, 취미생활의 포기, 24시간 위치추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다(이성철, 김충섭, 2013). 외국에서도 등록된 성범죄자나 거주 제한을 받고 있는 자들은 가족하고의 관계에서도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겪으며, 성범죄자의 가족들도 사회적 고립이 심하다고 보고되고 있다(Tweksbury & Levenson, 2009).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자에 의한 성폭력이나 강력범죄가 심심찮게 발생하면서 일반인들이 지니는 그들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스트레스나 우울, 자살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도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발찌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오히려 사회적 공감을 더 많이 얻고 있는 현실이다(이성철, 김충섭, 2013).

이에 본 연구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인간적 신뢰관계

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성 및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재범을 방지하고, 나아가 복귀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차의 성분이 스트레스 경감에 대한 신체적·약리적 효과가 있음은 과거로부터 입증되어 왔다. 예를 들면, 차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적 평온을 가져다주고 긴장을 풀어주는데, 차의 성분이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서와 이성을 본연으로 잡아 주는 역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안정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다(김인숙, 2004, 2007, 2011; 정영호 등, 2011).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은 참여자 개인의 독자성에 관심을 두고 성장과 자기실현을 향한 자연적인 경향성에 초점을 맞추며, 스스로의 사고와 감정에 대한 탐색을 촉진시키고, 자신의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인본주의적 접근방법에 뿌리를 두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차를 접하는 생활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고요히 성찰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곧 이 프로그램은 스트레스의 본질을 꿰뚫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기법에 해당된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차를 우려내거나, 마시거나, 대접하는 행동 등을 해보면서 바른 생각을 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차생활의 가장 큰 혜택이다(김인숙, 2004, 2007, 2011; 정영호 등, 2011).

프로그램의 효과

먼저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양적 변화에 관한 사항이다.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스트레스의 감소 효과를 실시 전과 실시 후의 스트레스 징후 척도 점수로 비교해보았다.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의 점수는 표면적 징후가 평균 3.39($SD=1.10$) 그리고 내면적 증후가 평균 3.54($SD=1.09$)이었는데, 프로그램이 끝난 후의 점수는 표면적 징후가 평균 2.00($SD=.89$) 그리고 내면적 징후가 평균 2.16($SD=.98$)이었다. 프로그램 실시 전에 비하여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는지를 Wilcoxon's matched-

pairs signed-rank test로 확인한 결과, 표면적 징후 및 내면적 징후 점수 모두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서 참여자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프로그램 진행요원들의 관찰 기록 및 참여자들의 소감문 등을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자리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전술한 바처럼 프로그램은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도록 하는 방에서 진행되었다. 시간에 맞추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진행자를 중심으로 원형의 형태로 앉도록 했는데, 10회기의 프로그램 진행 중 초반기에는 참여자들이 진행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반원형 형태로 앉았지만, 몇 회기 지났을 때에는 진행자와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원형 형태를 이루고 앉았다. 또 초반기에는 대부분이 첫날 우연하게 앉았던 그 자리를 찾아서 그대로 앉는 경향을 보였으나 중반기가 지나자 자신이 앉고 싶은 곳을 스스로 결정하기도 하고, 앉고 싶은 다른 참여자 옆에 다가가서 앉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앉아 있었을 때의 자세 변화를 보면, 초반기에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서로 낮설어 하고 눈치만 보고,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거나, 타인의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거나, 고개를 제대로 들지 않고 있는 등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또한 대다수가 얼굴 표정이 굳어 있었으며, 말도 작게 하는 등 분위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였다. 참여자들의 일부는 프로그램 초기에서부터 긴장 때문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프로그램 중 후반에서는 자세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대다수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서 집중하지 못하며 산만한 행동을 보였으며, 뒤에 앉아있는 보호관찰관을 계속해서 옆 눈으로 바라보는 행동을 보였다. 명상을 하는 동안에도 조그마한 소리가 나도 눈을 뜨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행동을 보였으며, 타인과의 눈 맞춤이나 정면 시선을 피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몇 회기 진행되어 중반기에 이르면서부터는 대부분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앉아서 프로그램에 집중하였고, 특히 프로그램 후

반에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시간 내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명상시에도 초기에 자세가 바르지 않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참여자들도 회기가 진행될수록 전체적으로는 음악소리에 귀를 기울여 차분하게 잘 적응하였다. 이와 같은 신체적 자세 변화는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지각하는 등 참여자들의 자신감이 상당히 많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Huang, Galinsky, Gruenfeld, & Guillory, 2011; Wilson & Peper, 2004).

셋째, 차를 마시면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감이나 자긍심을 회복하는 효과는 매우 뛰어난 편이었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옆 사람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혼자만 있거나, 대화를 하더라도 말이 너무 빠르거나 자기 이야기만 하고 타인에 관심을 두지 않는 등 의사소통의 기술도 부족하게 느껴진 상태였다. 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뭔가 숨기려고 하는 태도를 많이 보였으며, 자신이 여기에 왜 와 있는지 하는 불만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소극적으로 참여를 하였다. 첫 회기에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별칭으로 자신을 소개하도록 할 때에는 자신감 없이 목소리도 작게 하였지만,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하는 표정으로 호기심을 보였다.

그러나 후반기로 갈수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각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존경심,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분위기 마련 등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우선 자긍심 회복을 위하여 매 회기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별칭을 부르면서 안아주라고 하자, 초기에는 매우 어색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프로그램 중반기부터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안아주게 되었다. 그와 같이 자신을 다시 바라보고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주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시도하면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를 언어적으로도 표현하도록 했다.

매 회기 프로그램의 후반부에는 대화법 연습의 시간을 가졌다. 대화법 연습 이전에 몸을 움직이는 차체조를 실시했는데, 체조를 하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동작을 할 때 눈동자도 함께 움직이면 잠시나마 감정을 조절하도록 했다. 체조를 통해 스트레스가 조금 해소되면서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대인관계, 가족관계 개선에 있어 서로에게 다가가는 대화법을 연습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면서 하지 않으려고 머뭇거리다가 돌아가면서 모두 대화를 시도하게 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에는 타인에게 했던 말들이 상처를 많이 주었음을 인식하게 되어 앞으로 고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또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상대방에게 칭찬을 해보는 훈련도 하였다. 처음에는 칭찬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만, 칭찬하는 방법을 시연하자 한 사람씩 칭찬의 표현을 해보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어색해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격려해주니 표정들이 밝아지면서 연습에 열중하였다.

칭찬을 받았을 때의 기분을 물어보자 이구동성으로 행복했다고 표현했으며, 평소 칭찬을 해준 사람이 없어서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고 살아온 상태에서 이와 같은 기회를 계기로 타인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겠다고 하였다. 또 마지막 회기에서는 상대방에게 공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서 큰절을 올리는 훈련도 했다. 아직까지 큰절을 받아본 적이 없는 대상자들은 서로에게 큰절을 하였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관찰소 소장이나 프로그램 진행자인 필자로부터 큰절을 받으니 자신이 존중을 받는 기분이 들면서 행복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마음이 안정된다고 하였다. 그들이 표현한 소감문의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칭찬도 하고 큰절을 받으니 의미 있고 보람을 느꼈다.”(41세), “상대에게 다가가는 대화법을 배우고 나니 그동안 너무 심한 말을 많이 했구나 하는 반성도 되었다.”(52세), “상대를 칭찬하고 나니 내 기분이 너무 행복하다!”(58세), “소장님으로부터 큰절을 받으니 그동안 쌓였던 좋지 않은 감정들이 사라졌고, 존중을 받은 것 같아서 날아갈 것 같았다.”(35세), “나도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존중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29세), “이제는 대화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칭찬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50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매 회기 프로그램의 중반부에는 다도구를 만지면서 사람하고의 접촉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따뜻함의 느낌을 알도록 했다. 서로 상대방에게 차를 대접하면서 평소 경험하지 못한 문화의 습득에서 대접이나 존중을 받는 느낌 및 타인에게 대접을 하는 기분의 긍정성을 얻도록 했다. 차를 우려내어 서로 주고받은 경험을 통해서 부정적 감정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겼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좀 알 것 같다고 하였다.

차를 대접하면서 자신을 낮추게 되었고, 타인을 인정해주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으며, 또 예절도 익힐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소감들을 피력하였다. 소감문 내용의 예들을 살펴보면, “모든 것을 잊고 차를 마시면서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35세),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서 도움이 되었다.”(52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58세),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해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50세), “명상의 음악을 듣고 차를 대접 받으니 마음의 찌꺼기가 조금 사라지면서 기분이 개운해졌다.”(50세), “처음에는 분위기가 낯설고 교육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데, 나를 위한 차를 우려 마시니까 차분해지고 마음의 수행을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41세),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결론 및 제언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자들은 사회에서도 낙인이 되어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자존감이나 자신감 결여는 성범죄자들이 흔히 보이는 인지적 왜곡과 관련성이 높은데, 그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까지도 자기중심적으로 왜곡해버리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인지적 왜곡은 자존감이나 자신감 결여 상태에 있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니는데, 즉 범죄 상황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합리화의 기제는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Marshall & Marshall, 2000).

전자발찌 부착자들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일반인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바로 재범의 우려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출소 이후에도 따가운 시선 속에서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들 스스로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이기적기 때문이며, 또 대인관계의 기술이 부족하여 그들의 생활 자체가 심한 스트레스로 지각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들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면서 인간의 본질을 좀 더 깊게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긍심이나 자신감이 회복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내면을 스스로 성찰하는 습관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차문화를 응용하는 치료프로그램을 전자발찌 부착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했으며, 그 결과는 다른 연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처럼 매우 긍정적이었다(김인숙, 2007, 2011; 김인숙, 조성민, 2013). 자긍심이나 자신감이 결여되었던 초기 상태와 비교하여 프로그램 진행 후반기에는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존중감이 든 상태에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실용성을 논할 때에는 적어도 몇 가지 사항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추후 연구에서는 또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와 비교하는 일, 프로그램 진행의 효과가 어느 정도 오랫동안 지속되는지를 확인하는 일, 그리고 현재 응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왜곡된 사고를 수정해주는 프로그램 등을 추가하는 일 등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되기는 했지만, 치료의 효과나 목적에서 가해자들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는 변화를 좀 더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전자발찌 부착자들을 대상으로 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은 그들의 스트레스 경감 및

자긍심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발전은 성폭력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호성 (2012).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인숙 (2004).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여대생의 인지정서행동변화. *부산여자대학 행정논문*, 25, 229-233.
- 김인숙 (2007). 차문화치료를 통한 치매노인의 인지정서기능의 변화. *한국차학회지*, 13 (3), 25-41.
- 김인숙 (2011).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학생 불안감소 효과. *부산여자대학 행정논문*, 32, 307-327.
- 김인숙, 조성민 (2013). 보호관찰직원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차문화치료의 효과: U시 보호관찰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차학회지*, 19, 1-9.
- 김정환 (2013). 2013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모습. *보호관찰*, 13, 7-54.
- 대검찰청 (2013). *2013 범죄분석* (발간등록번호 11-1280000-000004-10). 서울: 대검찰청.
- 박선영, 심희기, 이춘화. (2010).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 I.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0-37-02).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
- 이성철, 김충섭 (2013). 전자발찌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 13, 227-282.
- 이형섭 (2013).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시행 5년의 현황과 과제. *보호관찰*, 13, 55-165.
- 장세진, 고상백, 강동묵, 강명근, 이철갑 등 (2005).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대한산업의학회지*, 17 (4), 302-322.
- 정영호, 이경남, 김인숙 (2011). *차문화치료*. 서울: 양서원.

- 조윤오 (2009). GPS 전자감시제도의 범죄억제력 예측요인 연구. *보호관찰*, 9 (2), 153-185.
- Beehr, T. A., & Newman, J. E. (1978). Job stress, employee health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 facet analysis, model and literature view. *Personnel Psychology*, 31, 669-670.
- Belknap, J., & Holsinger, K. (2006). The gendered nature of risk factors for delinquency. *Feminist Criminology*, 1, 48-71.
- Driemeyer, W., Spehr, A., Yoon, D., Richter-Appelt, H., & Briken, P. (2013). Comparing sexuality, aggressiveness, and antisocial behavior of alleged juvenile sexual and violent offenders.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58, 711-718.
- Giotakes, O., Vaidakis, N., Markianos, M., & Christodoulou, G. (2003).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sexual offenders. *Psychiatriki*, 14 (3), 181-190.
- Hall, R. C., & Hall, R. (2007). A profile of pedophilia: Definition, characteristics of offenders, recidivism, treatment outcomes, and forensic issues. *Mayo Clinic Proceedings*, 82, 457-471.
- Huang, L., Galinsky, A. D., Gruenfeld, D. H., & Guillory, L. (2011). Powerful postures versus powerful roles: Which is the proximate correlate of thought and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22, 95-102.
- Marshall, W. L., & Marshall, L. E. (2000). The origins of sexual offending. *Trauma, Violence, & Abuse*, 1, 250-263.
- NIJ (2011, September). *Electronic monitoring reduces recidivism*. Office of Justice Program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U.S. Department of Justice. NCJ 234460.
- Tewksbury, R., & Levenson, J. (2009). Stress experiences of family members of registered sex offenders.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7, 611-626.
- Wilson, V. E., & Peper, E. (2004). The effects of upright and slumped postures on the recall of positive and negative thoughts. *Applied Psychophysiology and Biofeedback*, 29 (3), 189-195.